

海外情報

順調롭지 못한 印度의 肥料購買

= 올해 사들인것 80餘万吨 =

輸入計劃에 比해 約 90万吨 不足

올해 (77 肥料年度) 에 海外로부터 175万吨의 尿素를 輸入할 計劃인 것으로 알려진 印度는 지금까지 80万吨前後의 輸入契約만을 締結하고 있어 앞으로 約 90万吨程度의 尿素를 輸入해야 할 実情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.

最近의 關係消息通에 依하면 印度 MMTC 는 上半期物로 23万吨, 後半期物로서 55万 ~ 60万吨의 尿素輸入契約를 締結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当初 印度가 今年에 輸入키로한 175万吨의 折半에도 未達하는 것이다. 이와같이 印度의 肥料購買가 順調롭지 못한 것은 印度에서 너무 싼 값에 사들이려는 때문에 供給国에서 敬遠하고 있는데다 先進国에서 生産調整을 하고 있는데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.

따라서 印度는 当初計劃대로 175万吨의 尿素를 確保하려면 앞으로 90万吨可量의 輸入을 必要로 하고 있는데 問国이 이 物量確保를 위해 肥料供給国과 어떻게 nego를 展開할 것이며 거기에서 어느程度로 價格引上에 應할 것인지? 이 점이 앞으로의 尿素國際時勢를 形成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그런데 今年後半期의 契約値는 가장 싼 것이 FOB \$ 110(Bulk) 이었으며 가장 비싼 것은 FOB \$ 113.75였으며 C & F로는 \$ 139.50 등이었다.

멕시코의 大型암모니아工場稼動

日産 1,500 ㄲ 2 基와 1,000 ㄲ 규모 1 基

最近 海外情報에 依하면 멕시코 페멕스社의 大型암모니아工場 3 基가 完成되어 操業을 始作한 것으로 밝혀졌다.

同 工場은 멕시코 “곤랴갓드地區.”에 日産 1,500 ㄲ 규모의 2 基와 “사라망가地區”의 日産 1,000 ㄲ 규모의 1 基工場이다.

이들 工場은 장래 建設될 尿素工場(日産 1,500 ㄲ 2 系列=파사리스트地區에 建設 77 年完成예정, 日産 1,000 ㄲ 1 系列=사라망가地區에 建設計劃)에 原料를 供給해서 尿素를 生産하게 될 것이다.

또한 이들 大型암모니아工場의 稼動으로 멕시코의 암모니아生産 能力은 既存의 2,400 ㄲ을 포함 日産 6,400 ㄲ으로 增加될 것이다.

따라서 이들 암모니아 生産의 增大로 멕시코는 암모니아의 對外 輸出을 計劃, 77 年에 28 万吨, 78 年: 76 万吨, 79 年: 60 万吨, 80 年: 71 万 7,000 吨, 81 年: 50 万吨, 82 年: 49 万吨(以上 總額 3 億 4,440 万弗)을 輸出할 方針인 것으로 밝혀졌다.

印度 MMTC 總裁에 스와미나산氏

그동안 空席中이던 印度鉍產品貿易公團 (MMTC) 總裁에 스와미나산氏 (大藏省) 가 就任했다 한다. 지난 3月末에 다스總裁가 辭任한 후 總裁代행에 기루氏가 任命되었으나 그후 同 總裁人事를 둘러싸고 적지않은 所聞이 나돌았었다.